



복음나누기

연중 제20주일(8월 17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루카 12,49-53)



최후의 심판

오늘 복음 서두에서 예수님께서는 꽤 섬뜩한 한 말씀을 던지신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방화범이 되려 오셨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사랑의 방화범이다. 진실한 사랑이 점점 소멸되어가는 이 시대 뜨거운 사랑의 불을 놓으려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 안에 이미 꺼져버린 지 오래인 영혼의 불에 다시금 활활 불을 지피기 위해서 오셨다. 대화가 단절된 곳에 소통의 불을, 슬픔으로 가득 찬 곳에 위로의 불을,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가득 찬 곳에 열정과 몰입의 불을 지르러 오셨다. ‘세상에 불’, ‘평화가 아니라 분열’ 등의 강력한 표현은 묵시 문학을 배경으로 하기에,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새겨들어야만 한다. 묵시 문학에서는 종말이 다가오면 가정에서부터 우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붕괴 현상이 초래될 것을 예언한다. 따라서 가정의 분열은 종말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전조인 것이다. 한 가족 안에서, 다섯 식구 중 3:2로 갈라져 맞설 것이라는 말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맞설 것이라는 말씀, 참으로 듣기에 거북하고 난감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하느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라는 말씀이다.

작가 한스 맴링 | 1467~1471년, 나무 위 유화, 221x161cm, 단스크 미술관, 폴란드



복음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38번 “자모신 마리아”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소서.
-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9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50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51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52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에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에 맞설 것이다. 53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께서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복음나누기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결을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세상이 확 바뀌기를 바라는 이들에게는 귀가 쫑긋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욕심으로 얼룩진 제도를 바꾸러 오셨을까요? 적당주의에 물든 사람을 몰아내고 새 인물로 교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고 조직이 교체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의 주체는 인간이기에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모두가 일시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분명 변화의 불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변화입니다. 바뀐 눈으로 세상을 보는 변화입니다. 그 불은 내 안에서 일으키라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불은 서서히 타오릅니다. 작은 불이 결국, 산을 태웁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던 믿음이 나중에는 가족을 인도합니다. 처음에는 박해를 받지만, 마침내 박해자도 회개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박해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입교한 뒤 가족의 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이 믿음의 길을 갔기에 가족 모두를 입교시킨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시련은 견디어 내면 보답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은총의 힘은 그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련 속에 분열이 있지만 결국은 은총을 위한 준비입니다.

생명의 말씀 씨보기 [루카 12, 49]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말씀나누기 이 시간은 원하는 소공동체에서만 진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함께하기

[진행자]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대립과 갈등 줄이기) 교황님 8월 기도지향 ‘상호 공존’ 에 따라

- 공동체와 함께 -

- ① 갈등 상황 속에 처한 이들이 하느님의 뜻에 맞게 해결할 수 있도록
 미사 중에 기억하기

- 내 삶 속에서 -

- ①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소원해 진 이웃에게 먼저 손 내밀기
- ② 나와 다른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38번 “자모신 마리아”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임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